

경제위기 극복지원을 위해 상표제도 확 바뀐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제도 간소화 등, 상표권자의 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규제개혁 추진

당면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를 내는 고객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추진된다. 우선, 내년부터 상표등록료만 납부하면 별도의 상표등록출원 절차 없이 상표권이 갱신되며,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상표에 대하여 누구든지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개선은 그동안 제기된 상표제도와 관련한 국민들의 세 가지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하나는 등록된 상표권을 더 편리하게 갱신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등록만 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줄여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등록된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해 단 한번에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료가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10년인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 할 경우, 수수료 납부와 별도로 정식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이를 갱신등록 신청제도로 간소화하여,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간단한 갱신신청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사용사실보다는 상표등록에 치중하여 상표권이 발생하는 현행 '등록주의' 제도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된다.

현행제도는 상표등록만 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저장상표를 양산하는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만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던 것이, 앞으로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상표등록료 납부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 상표법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르면 출원된 상표에 대해 심사관의 등록결정을 받게 되면, 2개월 이내에 10년치 상표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상표권자 등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고객이 특허청에 상표를 제출한 후,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 특허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수수료도 늘어난다. 현재는 상표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출원료' 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도 반환대상에 추가된다.

이와 같이 고객이 불편하게 느껴왔던 걸림돌을 제거하고 디딤돌을 놓기 위한 상표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조만간 국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제적·사회적약자를 위한 출원지원 강화

7월부터 출원 Expert System 본격 가동

7월부터는 대리인 없이 출원하는 개인발명가, 중소기업 등의 출원은 더욱 쉬워지고 중소기업의 출원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실물경제 위축은 물론 수출과 내수의 동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위해 그 동안 부분 시행하던 「출원 Expert System」¹⁾을 오는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금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특허출원 원격상담시스템」은 대리인 선임이 어려워 직접 출원하는 출원인의 서류작성을 콜센터 전문상담원이 원격으로 상담·지원하는 시스템으로 5월까지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오류율이 전년 대비 33.5%나 감소(2.1%→1.47%)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7월 전자출원 시 나타난 오류에 대하여 원인별 맞춤형 해결방안과 관련법령, 모범예제 등을 제공하여 출원서류 작성단계에서 출원인이 스스로 오류를 진단하고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오류해결시스템」이 가동된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 개방용으로 설계되어 고객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오는 8월부터는 온라인 출원인에 대한 지원시스템은 구축되었으나 서면으로 출원하는 출원인에 대한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면출원서류의 오류가 있는 경우 쉽게 알아보고 보정할 수 있도록 오류 부분을 빨간색으로 따로 표시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사례를 곁들여 제시하는 「빨간 표시 안내제도」도 시행된다.

아울러 출원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수료 감면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확인 마법사」 기능을 특허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출원분야에서의 중소기업지원시책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출원수수료 감면확대(50%→70%)로 인해 1,790개 기업에 대해서 6억 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기업당 334천원)과 30,805건의 제출서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수료 감면, 출원절차 간소화, 시스템 개선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염두에 둔 다양한 출원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업 수수료 감면 확대 현황(2009. 1. 1. ~ 5. 30)

(단위:천원)

출원한 중소기업수	'08년 기준수수료 (50%감면)	'09년 납부수수료 (70%감면)	총 수수료 감면금액	중기업당 감면금액
1,790	1,492,700	895,020	597,680	334

* 수수료=출원료+심사청구료

1) 전문가가 사용자 입장에서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안내하는 시스템

‘문자의 힘’ 상표출원에서도

독특한 서체, 도형화된 문자 등을 활용한 상표출원 증가

최 근 상표출원에서도 ‘문자의 힘’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맛잇한 문자에 디자인을 가미하거나 독특한 서체를 활용한 상표출원이 늘고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독특한 서체 및 도형화된 문자를 활용한 상표출원이 최근 5년간 18.8% 증가했다고 밝혔다.

관련 출원은 2004년 7,780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8년 15,487건으로 늘어났으며, 전체 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7.2%에서 2008년 11.7%로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의류·신발, 광고업, 사진·영화, 연예·스포츠업, 음식·숙박업 순으로 많았으며, GS 홀딩스, SK Telecom, GS 리테일, KT 프리텔, Sk 케미컬, 농협, 이랜드 등은 상표출원에서 문자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으로 꼽혔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영화포스터·책표지·광고자막 등에서 컴퓨터 폰트를 그대로 이용해 만든 맛잇한 글자대신, 손으로 직접 써서 독특하게 디자인 한 글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 동안 상표 표장에서 문자는 주로 상품의 명칭이나 그 특성을 설명하는 역할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이목을 효과적으로 끌기 위한 수단으로 문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상품이 가지는 느낌을 소비자들에게 감성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표장에 문구를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허청 우종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문자를 잘 활용한 상표는 소비자들의 시선을 쉽게 끌 수 있어 상표의 선전 효과가 커지고, 타인이 쉽게 모방할 가능성도 낮아진다. 따라서 문자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강한 상표’를 만드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라고 말했다.

복잡한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의 편안함에 대한 향수로 최근 캘리그래피(Calligraphy,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향후에도 다양한 활자표현 기법을 활용한 상표출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 사례

표장	지정상품	표장	지정상품	표장	지정상품	표장	지정상품
	신발류, 스포츠의류, 신시복, 모자류, 벨트류, 판매 대행업 등		간행물광고업, 광고대행업, 광고문 작성업, 마케팅서비스업 등		한의원업		신발류, 스포츠의류, 모자류, 벨트류 등
	식용전분, 식용보리기루, 가공한 곡물, 카스테라빵, 셀러드소스 등		화장품류, 가정용 전기믹서, 전기세탁기, 스팀청소기 판매대행업 등		감귤(신선한 것), 신선한 과일, 오렌지(신선한 것), 신선한 과일소매업 등		생화, 꽃배달 서비스업, 조경업
	리조트숙박업		과일, 닭고기, 음식 및 식품류제공 서비스업				

캠퍼스 지식재산(IP)교육 열기 UP!

대학 캠퍼스 지식재산교육 신청 증가

특허청은 대학 캠퍼스의 지식재산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서울대 등 6개 대학을 대상으로 13회의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274명의 대학생이 교육을 받았다. 지난해 14개 대학이 교육을 신청한데 이어 올해는 건국대를 포함 4개 대학이 추가로 신청하였다.

지난 6월 4일에는 인천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허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하여 그곳 대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향후, 캠퍼스 지식재산교육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대학 산학협력단, 지역 지식재산센터와 연계하는 교육기회를 마련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캠퍼스 지식재산교육은 특허출원 능력과 특허정보 활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검색, 전자출원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캠퍼스를 방문하여 무료로 실시된다.

교육신청은 특허청 산하 특허문서전자화센터 홈페이지(www.kpds.or.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출원지원실(02-555-9293)로 문의하면 된다.

지식재산교육 신청 대학

대학명칭	교육과목	비고
강릉대	전자출원	
건국대	특허정보검색, 전자출원	'09년 추가
고려대	전자출원	
단국대	특허정보검색, 해외특허정보검색	
대불대	특허정보검색	'09년 추가
상지대	특허정보검색, 전자출원, PCT전자출원	'09년 추가
서울대	특허정보검색, 전자출원, 해외특허정보검색	
연세대	전자출원	
우석대	특허정보검색, 전자출원	
원광대	특허정보검색	
인하대	특허정보검색, 해외특허정보검색	'09년 추가
전남대	특허정보검색, PIAS특허정보분석	
전북대	특허정보검색, 전자출원	
제주대	특허정보검색	
포항공대	전자출원	
한서대	전자출원	
한양대	전자출원	
KAIST	특허정보검색, 전자출원	

한·영국간 특허고속도로 열린다.

제2차 한·영 특허청장 회담에서 합의

특허청장은 지난 6월 5일, 서울 조선히호텔에서 이안 플렛처(Ian Fletcher) 영국 특허청장과 제2차 한·영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특허심사하이웨이 도입에 합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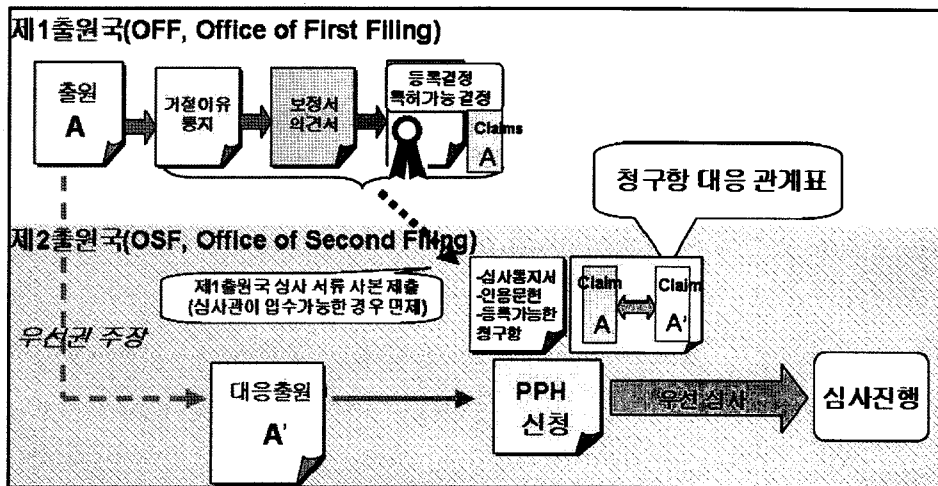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란 양국 공통 특허출원 중 먼저 출원한 국가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특허출원에 대해 상대국이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부터 일본과, 올 1월부터는 미국과 PPH를 시행하고 있고, 덴마크와는 올 3월 1일부터 시범 실시 중이다.

영국 특허청(UK-IPO)은 우리나라와의 특허출원 건수는 많지 않지만,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Ernst & Young의 2007년 평가 결과에 의하면 유럽특허청(EPO), 독일특허상표청(GPMA)과의 3국 특허 생산성 비교 결과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어 특허출원의 내용과 심사품질 면에서 매우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특허청은 지난해 4월부터 유럽판 PPH인 UPP(Utilisation Pilot Project)를 실시하고 있는데, EPO 34개 회원국 중 영국을 비롯하여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4개 특허청이 협력 파트너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과 영국 양국은 상대국의 심사결과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심사처리기간의 단축과 심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기업과 출원인은 해외 특허획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의 개요



특허심사의 국제 공조 시대 열려

5대 특허강국간 특허심사 표준화 추진 합의

한 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5대 특허강국 간 특허심사 표준화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특허청은 지난 6월 11~12일 양일간 독일 무르나우에서 열린 선진 5개국(IP5¹⁾) 특허청 차장급 회의에서 5개국 간 특허심사 표준화를 위한 10대 기반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본격 추진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5개국이 합의한 10대 기반과제는 5개국간 심사결과 상호 공유시스템 구축, 5개국 간 출원서식 통일화, 특허검색 DB 및 시스템의 공동 구축, 심사관 교육훈련, 특허심사지침 통일화 등 특허심사와 관련된 제도와 시스템을 총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5개국이 10대 기반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간다면 특허심사 공조에 따라 각국 특허심사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뿐만 아니라, 5개국간 특허심사 환경 전반이 표준화되어 5개국 특허심사 결과의 유사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5개국은 현재의 각국 특허심사 환경과 관행을 비교 검토하고, 5개국 간 협력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한국에서 5개국 심사관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인해 작년 출범된 IP5간 심사협력 활동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공 특허청



1) IP5 :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분야의 5대 강국을 지칭